

“그 책들이 있어 도시생활이 더 알차졌다”

도시인 위한 문화생활 안내서 잇따라 출간... '문화소프트웨어' 향유요령 알려줘

복잡한 도시생활. 뒤죽박죽인 서랍속에서 작은 클립을 찾듯, 있긴 분명 있을텐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때로 짜증스러웠던 적은 없는가. 그 도시생활을 즐겁고 요령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클립은 왼쪽 어느 구석”라고 쓴 메모쪽지 같이 상세한 정보를 담은 책들이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서울에서의 생활에 관한 것들. 그것은 올해가 서울 定都 600년이 되는 해여서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총생산의 1/3을 생산하고 전국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56%를 감당하며 인구의 1/4이 몰려사는 거대 도시(1991년 '서울시 통계담당실' 자료)가 바로 서울이고 수도권 까닭도 도시생활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서울을 꼽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들은 여성지의 쇼핑가이드나 등산·낚시 전문잡지에서 가보만한 곳으로 소개된 곳이 주제에 맞게 모여져 한편의 책에 묶이기도 하고, 현대 도시문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 관람이나 연극, 전람회, 사진전, 영화, 비디오, 책에 이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그래서 그 양이 적을 때보다 오히려 못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문화 '소프트웨어'의 향유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책들이 있어 복잡한 도시생활이 더 알차졌다”는 올해 서른셋, 서른둘로 자녀를 하나 둔 박모(은행원) 이모(의상디자이너) 부부의 사례를 예들어 보자.

문화의 '소프트웨어' 더 재미있게 즐기는 법

부부가 모처럼 함께 퇴근하는 저녁. 직장생활 8, 9년이면 외식도 이골이 나 음식 잘하는

집을 웬만큼 꿰고 있음에도 막상 나서려면 먹을 곳이 없다. 같은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면 더 괜찮은 집에서 먹고 싶은 것이 이 부부의 생각. 「이브닝 서울」 「서울의 소문난 맛집」 「한국 맛있는 집 999점」 등 음식점을 소개해 놓은 책이 얼른 생각나 인근 서점으로 들어간다. 마포에 있던 그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된 음식점 정보를 찾았다. 메뉴, 분위기, 위치, 가격까지 사정에 맞는 것을 5분만에 골라보고 그 음식점으로 향한다.

항상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무작정 아무데고 들어가 어떻게 괜히 신경쓸 필요가 없어 좋다. 또 요즘 정보서들에 터무니없는 정보가 많이 사라진 것도 그를 안심케 하는 이유다. 식사를 하고 나온 그들은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한잔 마시자고 의기투합했다. 분위기 있는 찻집, 개성있는 카페 등 아까 서점에서 보니 그런 곳들만을 소개한 책들도 서너 종 눈에 띄었다.

「내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하이텔에 '멋이 있는 곳'이라는 게시판에 등재됐던 컴퓨터 통신 동호인들이 추천하는 괜찮은 찻집 모음이다. 이 책들이 소개하는 곳은 70년대의 '약속다방'도, 80년대의 '숲속의 빈터'와도 많이 틀린다. 젊은이들의 취향과 께, 정서에 맞는 밝고, 탁트이고, 개성있는 곳. “그래 우리도 그곳이 좋다!”.

정보의 폭증은 이들에게도 자주 공포로 다가온다. 정보 하나를 얻는데 이사람 거치고 저사람 거쳐가며 몇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딱 질색.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정보를 유용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상비한 것. 「정보방망이」는



복잡한 도시생활을 더 편리하고 더 알차게 사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앞다투어 쏟아지는 책들.

개개인의 기억력을 조롱하듯 한 정보화 사회의 정보폭증을 4개의 '요술방망이' 전화, 텔리텍스, 비디오텍스, 컴퓨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 사무실 할것없이 앉은 자리에서 그 4가지 매체를 이용,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담고 있다. 가령,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모두 17가지 문화·예술·교양, 여행·관광, 레저·스포츠, 교통, 당첨·복권·운세, 뉴스·기상·시간, 쇼핑·물가, 각종고장·아프터서비스, 전화·전보, 행정기관 민원안내 등으로 나누고, 17가지 각 영역은 다시 세분된다.

출근 부담이 없는 마냥 한가로운 일요일. 계획없이 시작하면 대책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일요일이다. 월요일 출근해 보면 “하루종일 잠만 잤어” “영화나 볼까 했는데 재밌는 건 다

매진이더군” “일요일은 신문 한 장, 책 한 줄 읽기가 더 어려워” 하는 동료들의 푸념을 듣는다. 박모·이모 부부에게도 그런 때는 있었다. 아이까지 있는 지금 계획없이 보내는 휴일은 전쟁을 치르고 난 느낌 그것이다. 「문화생활소프트」는 일요일 오후를 프로야구 방송에만 빠져있던 남편을, 이 영화, 저 연극, 그 비디오 사이를 방황하며 선택에 고심했던 그들에게 소위말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계획된 눈’을 갖게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었다. 가령, 만화와 경기 스코아, 몇몇 흥미로운 기사만 읽고 버리던 스포츠신문을 보다 유익한 상식의 제공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이 책을 통해서였다. 스쿼시 라켓, 오리엔티어링,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야외 서바이벌게임 등 이전 신중 스포츠를 하나 배워보리라 다짐한다.

■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탁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선자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후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고후영 만화 십팔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가 : 5,000원(각권)

총 10권의 고후영 대하 만화소설 - 만화 십팔사략

- | | |
|-------------------|--------------------|
| 1 삼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 6 후한(後漢)시대 |
| 2 춘추(春秋)시대 | 7 삼국(三國)시대 |
| 3 전국(戰國)시대 | 8 남북조(南北朝)시대 |
| 4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 9 당(唐)의 흥망 |
| 5 함무(項羽)와 유방(劉邦) | 10 북송(北宋)·남송(南宋)시대 |

총 10권 중 ①②권은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

사진으로 조명한 중부내륙의 명산

충청일보사 펴냄 「소백산」

우리나라 중부 내륙의 깊은 곳에 높이 솟은 소백산의 자연풍물과 문화를 세세하게 기록한 사진집 「소백산」(김운기, 충청일보)이 출간됐다.

1991년 3월 1일부터 충청일보에 2년간 연재됐던 내용을 묶은 이 책자는 소백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九峰八門이 서북쪽 산허리를 두르고 형제봉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뻗은 소백산의 실질적, 정서적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풍군을 사이에 두고 산맥이 남쪽으로 이어져 충북과 경북이 도계를 이루고 영남과 호남을 갈라놓는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1430m)을 비롯해서 단양과 풍기를 잇는 해발 689m의 죽령 그리고 추풍령(221m)과 옥십령(734m) 등 13개의 고개를 찾은 “발품”이 책 여기저기에 배어 있다. 이밖에 소백산 주변의 옛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산세만큼 풍성하다. 예를들어 영일군 하동면에 있는 김삿갓의 묘, 속리산의 문장대 뒤에 정교하게 축성된 건원산성 등이 그것인데, 풍정의 역사 속에서 소백산의 역사도 아울러 들춰낸다.

이 책에는 또한 소백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진과 글에 담겨 있다. 빨치산과 그 토벌대에 관한 이야기, 민속주 ‘호산춘’을 담그며 일평생을 살아온 권숙자씨, 경상북도 인간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활의 장인 권영학씨 등의 이야기는 산과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그 무엇을 느끼게 한다.

소백산은 기후적으로 한대와 온대가 만나



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비로봉 주변은 식물의 낙원을 이루고 희귀동물과 자연 풍광이 좋아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안내자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만하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소백산에 “석회석과 상당량의 무연탄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며 “소백산이야말로 자연의 보고”라고 적고 있다. 이 책 「소백산」은 그 보고서가 될 것이다.

기획을 시작한 후 저자 김운기씨를 비롯한 취재팀은 유적발굴이라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는데, 속리산 금강골 상류에서 도굴되어 쓰러진 3층석탑과 탑의 사리탑으로 썼던 소탑 1기 등의 발굴이 그것이다.

「문화여행가이드」 「서울북맵」도 큰 도움이 된다. 이색 볼거리, 자연·우주관측소, 산업·사회 견학소, 건강정보들이 실려 있고, 서울에 있는 서점·도서관에 관한 지도·전화번호 등 완벽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아이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밖에도 그들이 휴일을 보내는데 도움주는 요긴한 정보는 많다. 「서울구경」은 남들이 떠나고 난 서울안 나들이를 안내한다. 놀이공간, 문화공간, 역사공간, 휴식공간으로 서울의 쉼터를 구분, 홍릉수목원, 용산가족공원, 개포 ‘시민의 숲’ 공원,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 백계고분터, 절두산 순교기념관, 행주산성, 동구릉, 종묘, 예술의 전당 등을 소개한다. 자주 들어 다 가본 것 같지만 의외로 안가본 곳이 많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서울스케치」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갤러리, 공연장, 공원, 터미널, 역, 레코드사, 유원지, 호텔, 극장 등의 전화번호와 지도, 버스 노선·요금, 입장료, 지하철시간 등을 꼼꼼히 수록했다.

아니면 가까운 근교로 나가도 좋다. 「서울 근교 당일 코스」 「서울주변 40 명산」 등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길을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통일로, 자유로, 경춘가도... 용미리, 고모리지, 마현마을, 신록사, 물골안 계곡, 운심생각, 청량지 등 “단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경들이다”.

물건을 구입할 일이 생겼다. 쇼핑도 문화의 하나. 그리고 쇼핑은 사치가 아닌 필수적인 일과이다. 거대 소비도시 서울, 서울은 우리

나라에서 물건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이자, 또 같은 물건이 가장 싸게 팔리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시장」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발품 적게 들이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주는 ‘新 쇼핑문화’의 안내서이다. 의류, 직물, 침구, 생활잡화, 식품, 약재, 그릇·가구, 주택관리용품, 취미, 음악·미술·종교, 서적·문구·완구, 그 외 중고차·카인테리어·수입품·의료기구·금고·재봉틀·안경 등의 전문시장을 주차장 정보까지 담아 소개한다.

지도·전화번호·이용법 등 기초정보 담은 책도

책을 이용해 복잡한 도시생활, 밀집된 문화 상품들을 짓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선택해 사는 이 부부 이야기를 통해 몇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하나는 정보화 사회의 위력으로 넘쳐나는 정보, 잡아두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고 마는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서 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같으면 팸플릿 하나에 담아도 충분한 분량이 이제는 책 한 권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책이 정보 ‘속도’를 정보 ‘집적’으로 변환, 신문·잡지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컴퓨터 등의 ‘영상언어’를 한 곳에 가두어 ‘자료화’하고 있는 점이다. 책의 격을 소중히 여겼던 앞세대들이 “저것이 무슨 책이냐”고 역정부터 널 책들이 엄연히 실용·정보서로 자리매김하며 없어서는 불편해서 못 견딜 필요할 책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정혜옥 기자

흑인 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128면/3,000원

어린이도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종 차별, 장애자, 소외된 사람, 가족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들이 “사랑”으로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이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인간과 신에 대한 파스칼과 노자의 이해

조명애 지음/236면/5,500원

철학 박사학위 논문 시리즈의 제3권으로, 서양과 극동의 영적 생활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파스칼과 노자의 사상을 그들이 남긴 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했다.

깃발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엄복명, 엄철 편저/신하령, 김태원 옮김/208면/4,500원

중국철학우회 세번째 책으로, 중국의 빼어난 철학 우화 77가지를 중국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화보와 함께 모아 엮은 것이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기지와 해학,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과학철학 2

A.F. 차머스 지음/신일철, 신중섭 옮김/224면/5,000원

1985년에 번역·출간된 《현대의 과학철학》에 이어 나온 것으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정통적인 철학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과학을 제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